

# 당귀, 천궁 바닥세 올 재배면적 감소 예상 산약값 '들쭉날쭉' 매점매석에 의한 '장난'

수능시험에 제16대 대통령 선거까지 겹친 지난 연말 한약시장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 평균 10% 정도는 무난하게 매매가 이뤄지곤 했던 한약상들도 12월 들어서는 많아야 3% 정도가 고작이고 "공치는 날도 허다하다"고.

골담초, 생산약, 반하, 남성, 원시호, 죽시호, 자연산 하수오 등 자연산 약재들은 많이 생산돼지도 않고 또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 물동량도 제로에 가깝다.

지난해 과잉생산에 2001년 재고량까지 누적, 물량이 넘쳐나는 당귀, 천궁, 백지, 방풍 등의 바닥세 경향은 올 재배면적 감소 경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다.

1년근 소황기도 식품용 수입약재의 범람 영향으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강활 값이 지난 10월 초 대비 약 50% 포인트 폭락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시세하락한 품목들은 물량이 넘쳐나서, 오른 품목은 또 값이 비싸서 나름의 이유로 한약시장은 전반적인 거래부진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기자** 햇것 출하와 함께 시세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 구기자 구입을 미뤘은 중상들에 의해, 처음 햇것 나올 무렵 근당(6백g기준) 7.8천원 선을 형성했던 구기자 근당 시세가 생산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4천5백~5천원 선까지

곧두박질하자 농가에서 구기자 관리를 소홀히 한 영향으로 구기자 수확이 마무리 될 무렵엔 구기자 햇것 수확 물량이 대폭 감소. 사태를 파악한 장사꾼들이 그때서야 너도나도 매입을 서두르면서 시세가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 지난 12월초 청양산 구기자 상등급 근당 시세가 1만3천5백원, 진도산은 1만6천5백원 선까지 폭등했다. 12월말 현재 거래되는 청양 산지시세는 근당 1만2천원 선이다. 2002년도 생산량 감소로 상보합세 유지하고는 있으나 경기부진으로 매기는 부진한 상황이다.

**맥문동** 시세 상보합세.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심 상품이 1만5백원, 중품이 7천5백원선, 막막은 근당 6천원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밀양산 거심 상품은 1만1천원, 중품은 근당 9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밀양산 물량은 귀한 편이다.

**길경** 물량이 귀하다. 2002년도 재배량이 많지 않은데다 막길경도 생것 1관(4kg)에 1만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를 밀려 한약재 길경으로 판매할 경우 인건비 등 생산원가만 도 근당 2만원선을 넘어서는 까닭에 수지타산이 안맞은 농가에서는 한약재 길경 출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도 통자가 3만원선, 절길경이 1만4천원 선으로 폭등세 보이고 있다. 내년 봄이나 초여름쯤 햇것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국산 길경 시세는 상보합세 유지될 전망이다.

**당귀** 구랍 26일 대구도매시장에서 신당귀 절품이 근당 7천원선에 낙찰. 토당귀 통자는 근당 2천원 선, 절품은 근당 3천2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12월말 현재 일당귀 시세도 지난 10월 2천5백~2천1백원 선보다 더 떨어진 근당 1천8백원 선이다. 2002년도 당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데다 지지난해 재고 물량까지 가세해 전반적인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약 업계 실정상 바닥세인 당귀 값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현재 유통되는 햇당귀는 모두가 화건이며 절단된 A급이 2천9백~3천원, B급이 2천6백~2천8백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양건당귀는 올 2월쯤부터 나오기 시작할 예정.

**산수유**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등급이 1만원 선, 기계작업으로 씨를 제거한 중품이 7천5백원 선으로 상보합세. 햇것 출하가 시작된 지난

11월 무렵 산수유 상등급이 근당 8천5백~9천원 선에 거래 이뤄졌으나 일본으로 나가는 보파리 물건으로 물량이 빠지면서 시세가 근당 1만1천원 선까지 오름세. 손작업으로 씨를 제거한 상품의 경우 최고 1만1천원 선까지 거래됐었다. 산수유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에도 경북 의성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의성산 산수유는 구례군 산동산에 비해 알이 작아 값이 다소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천궁** 2002년도 천궁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누적 영향으로 지난 11월 2천9백~3천원 선까지 하락세 보이던 일천궁 시세가 최근 들어 다소 상승.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일천궁 A급이 3천5백원, B급 3천2백원, 토천궁 통자는 9천~1만원 선. 절단품은 1만1천원 선이다.

**산약** 지난 11월경부터 일부 장사꾼들의 매점매석에 의해 시장 출하량이 인위적으로 조절되면서 가격이 들쭉날쭉 기복이 심하다. 지난 9월경 근당 8천5백원 선이던 식산약 시세가 1만3천원 선에서 지난 10월경엔 근당 6천원 선으로 폭락, 지난 11월경엔 값이 올라 근당 9천5백원 선에 거래되다가 얼마전엔 다시 7천5백~8천원 선으로 하락. 12월 28일 안동장에

서는 근당 8천5백~9천원 선에 거래 이뤄졌다. 이처럼 산약 시세변동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일부 장사꾼들에 의한 매점매석으로 출하물량이 조정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자연산 생산약이 근당 2만4천원 선. 재배산 식산약은 근당 9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택사**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택사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통자가 2천5백원 선, 절품이 2천8백원 선으로 다소 내림세 보이고 있다. 지금 한창 햇것 출하가 이어질 시기임에도 시세가 너무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는 탓으로 산지에서 수확작업이 더디다. 12월 말 현재까지 아직 출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달부터 햇것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 택사 시세는 지금 보다 다소 더 빠질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황기** 12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1년근 소황기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5천3백원, 절황기는 5천8백원 선으로 지난 10월 7천원 시세 이후 지속적인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다. 이에 반해 3년근 이상 중황기는 근당 5만3천원, 6년근 이상 대황기는 근당 7만5천원 선으로 상보합세다. 수입산 황기는 2천~2천3백원 선. 대황기 물량은 공급이 달리는 데 반해 1년근 소황기는 물량이 넘쳐나 시세가 좀처럼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 황기 범람도 국산 소황기 바닥세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듯. 〈문정희〉

### 중국약재 시장동향

#### 전반적 약보합세

○...중약재시장 경기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경향이 강하다. 특히 산수유, 시호, 연교, 천마 내림세 경향이 뚜렷. 산수유는 2.8~3.7\$ 선으로 하락세. 3\$이던 시호도 2.7\$ 선으로 내렸다. 연교도 1~1.7\$ 선으로 다소 하락. 10\$ 이상으로 상보합세 형성하던 천마도 6.6~7\$로 큰 폭 하락했다.

#### 길경 값 오름세

○...한편 길경은 한국에서 상당량을 생것으로 수입해 간 지난 가을 이후 값이 많이 올랐다. 12월말 현재 안국 약재시장에서 거래되는

길경 시세는 1.10\$ 선이던 생산시기 이전보다 다소 오른 1.90~1.95\$ 선. 생것을 감초처럼 절단한 것은 1.35~1.40\$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1.10\$ 선이던 복령도 1.25\$로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으며 같은도 0.35\$ 선에서 0.40\$ 선으로 다소 오른 시세에 12월 현재 도매 거래되고 있다.

#### 오미자 상등급 물량 귀해

○...오미자 상등급 도매시세는 12월말 현재 5.0~5.5\$ 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상등급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편 천궁은 본격적인 햇것 출하가 이어지면서 의외로 오름세 경향. 이유는 최근 몇

년동안 천궁이 바닥세를 형성하면서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라고. 패모도 생산 초 15\$ 선에서 지금은 19~20\$ 선으로 지속적인 상보합세를 유지해가고 있고 1.2\$ 선의 소황정도 1.50\$로 다소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 연 1억2천만불 한국에 수출

○...중국의 수출대상국 중 한국은 1위, 금액규모로는 연간 1억2천만불에 달한다. 반하, 복령, 계피, 황기, 원지, 황금 등이 주요 품목을 비롯 약 300여종의 중약재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감소 수출 금액은 약 4백만불 정도.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의약품시

험연구소에서의 중약재 품질검사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중국에서는 약재 수출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 일, 후생성 허가절차 복잡

○...양의학이 상대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본의 약재 시장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본 정부의 중약재 수입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유효성분, 약효, 농약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등 후생성 허가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성에 등록된 약재는 약 2백10여종이다.